“내일은 슈퍼스타…보잉보잉처럼 날아올라야죠”

장수 코믹 연극 ‘보잉보잉’ 주역
광주 출신 장은석·이수경·박세훈씨
서울 대학로 등서 활동 연기 경력 쌓아
28일까지 유·스퀘어 동산아트홀 공연

연극 ‘보잉보잉’의 주인공 장은석·이수경·박세훈(왼쪽부터)씨는 언젠가는 작품명처럼 배우로서 정상으로 날아오르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오는 28일까지 광주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열리는 연극 ‘보잉보잉’의 웃음 포인트는 롤러코스터처럼 찾아온다. 총 400만 관객을 모은 ‘보잉보잉’의 흥행 요소는 탄탄한 대본과 치밀한 연출 외에도 배우들의 찰떡 같은 연기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보잉보잉’을 연출한 손남목 감독은 최근 서울 대학로에서 전 배역 오디션을 열어 극을 이끌 새로운 출연진을 뽑았다. 12일 오후 찾은 무대에는 장은석(30), 이수경(32), 박세훈(31)씨가 올라 1시간 40분 동안 관객을 웃음바다로 안내했다. 광주 출신인 이들은 ‘보잉보잉’의 신·구 출연진으로서 50여 일의 연습을 거친 뒤 서울·대구·광주 무대에 서고 있다.

장은석씨는 처음 서는 연극 무대에서 당당히 주연 ‘조성기’ 역을 꿰찼다. 조성기는 승무원 애인을 셋이나 두고 있는 바람둥이다. 어느 날 악천후로 비행이 결항되면서 애인 세 명 모두가 그의 집에 모이게 된다. 성기의 친구 임순성(박세훈)과 가사도우미 옥희(이수경)는 궁지에 몰린 그를 돕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청주대에서 연기를 전공한 그는 독립영화 20여 편에 출연하며 충무로에서 연기 내공을 다졌다. ‘보잉보잉’은 장씨가 배우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했다.

“3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장편 독립영화 주연의 최종 오디션까지 봤지만 끝내 떨어졌어요. ‘여기까진가’ 하고 여행사에서 영업일을 했죠. 사람을 대하는 일은 자신 있었지만 책상 앞에만 붙어있을 때는 몸이 근질근질하더라고요. 그러다 5년 전에 봤던 연극 ‘보잉보잉’의 오디션 공고를 접했고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바람둥이인 극 중 모습과는 달리 무대 밖에서 만난 장씨는 순박하고 선한 인상을 지니고 있었다.

“극 중 ‘조성기’와 저는 180도 달라요. 세 여자를 거느리는 능글맞음이 도저히 나오지 않아 감독님으로부터 혼도 많이 났죠. 천연덕스럽고 과장된 연기를 위해 배우 조정석, 신하균씨의 작품들을 참고했어요. 동료 배우와 연출진과 함께 끊임없이 조언을 나누며 연습한 결과 저만의 ‘조성기’가 나올 수 있었어요.”

이수경씨는 광주 출신의 장점을 살려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를 구사하는 가사도우미 옥희 연기를 무난히 소화했다. 수년간 코미디언 공채를 준비한 덕인지 물 뿜기, 다리 찢기 등 고난도 슬랩스틱 코미디를 자유자재로 해냈다.

“극 중 ‘옥희’는 우악스러운 40대 아주머니예요. 저는 귀여운 면모를 살렸어요. 역대 옥희 캐릭터와 다른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애드리브(즉흥 연기)도 늘었죠. 옥희 덕에 웃고 간다는 관객들의 칭찬을 들으면 고질적인 성대결절도 씻은 듯이 낫는 것 같아요.”

공연 시작 전 객석 분위기를 돋우면서 ‘광주의 아들’임을 내세웠던 박세훈씨는 대학로에서 꾸준히 배우 경력을 쌓았다.

‘누구세요’(2012), ‘최고의 사랑’(2014~2015), ‘벙어리 장갑’(2018) 등에서 1인 다역으로 활약한 그는 지난 2016년 극단 토박이 5·18 연극 ‘모란꽃’에도 출연하며 광주 무대와 인연을 맺었다. 지난해에는 청년창작집단 묘생의 ‘토끼와 포수’ 주연 장운역을 맡아 현대적 시점으로 본 순수한 사랑 이야기를 펼쳤다. 무대 의상을 흠뻑 적실 정도로 열정적인 연기를 펼친 그는 제법 진지한 태도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소속된 극단 없이 프리랜서로 배우 활동을 하는 건 녹록지 않아요. 저는 지난해까지 대형 마트에서 일하며 연기를 병행했어요. 그럼에도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건 하고 싶은 연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초심을 잃지 않고 연극 문을 두드리다 보니 고향 무대에 서는 행운까지 얻게 됐네요.”

“흔히들 ‘연극은 배우의 작품, 영화는 감독의 작품’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작은 조명 아래 맨 몸으로 무대와 씨름하는 연극은 저의 연기 생활에 가장 큰 스승입니다. 연극 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로 관객들을 만나고 싶어요. ‘보잉보잉’이라는 연극 제목처럼 저희도 언젠가는 정상으로 날아오를 날이 오겠죠?”(장은석)

마지막으로 자신이 지닌 매력 3가지를 꼽아보라고 부탁했다. 장은석씨는 ‘단순함’ ‘친화력’ ‘착함’을, 이수경씨는 ‘호감’ ‘능글맞음’ ‘무대 장악력’, 박세훈씨는 ‘생각없이 살기’ ‘웃기’ ‘순발력’을 들었다. 이들의 매력은 오는 28일까지 ‘보잉보잉’ 무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 12세 이상 관람가. 평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3시·7시, 일요일 오후 3시, 월요일 휴무. 전석 3만5000원. 문의 1644-6755.

/글·사진=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뚝딱뚝딱 가마 짓고 옹관 구워요”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10월까지 옹관 체험 운영

“뚝딱뚝딱 가마짓고 옹관을 구워요.”

문화재청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소장 임승경)는 연구소 내 옹관 제작 공방에서 오는 17일부터 10월까지 4회에 걸쳐 ‘대형옹관 제작·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에 앞서 나주문화재연구소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한 ‘대형옹관 제작기술 복원 프로젝트’를 통해 고대 옹관 제작기술을 밝혀낸 바 있다.

1차 ‘뚝딱뚝딱, 가마 뼈대 세우기’(4월17일~19)에서는 ‘옹관 가마 알기’ ‘대나무와 새끼줄을 엮어 가마 뼈대 만들기 체험’과정이 진행되며 2차 ‘뚝딱뚝딱, 가마에 띠풀 엮기’(5월15일~17)에서는 ‘새끼줄로 띠풀을 엮어 대나무 살에 묶는 체험’, ‘옹관 배우기’ 등을 체험한다. 3차 프로그램 ‘뚝딱뚝딱, 가마에 진흙 바르기’(9월25일~27)는 ‘옹관이 잘 만들어지길 바라는 소망을 등불에 적기’ 등이며 4차 ‘가마에 옹관을 구워요’(10월22일~24)는 ‘불을 때는 체험’이 예정돼 있다. 참가자들은 옹관 제작 체험을 통해 2m가 넘는 가마를 짓거나 옹관을 굽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참관도 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문화재연구소 50돌을 기념해 ‘타임캡슐 옹관을 만들어 추억 담기’(5월16일), ‘타임캡슐 만나러 밤마실 가요’(10월22일)행사도 진행한다.

선착순(총 100명)으로 모집하며 체험일 이틀 전까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접수하거나 전화(061-339-1114·1128) 또는 현장 접수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함평양민학살사건’ 알리기 프로젝트 진행

백은하 소설 ‘귀향’ 모티브
영상작품 제작·전시회 추진
H탐사 크라우드펀딩 운영

‘함평양민학살사건’은 1950년 12월 6일부터 1951년 1월 14일까지 함평군 월야면, 나산면, 해보면 등 3개면에서 국군이 민간인을 총으로 쏜 집단학살사건이다. 그동안 ‘함평양민학살사건’의 진실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은 70여년의 세월동안 숨죽이며 살아야했다.

백은하(사진)작가의 소설집 ‘의자’에 실린 단편 ‘귀향’을 모티브로 ‘함평양민학살사건’을 기억하고 알리기 위한 카카오같이가치프로젝트(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63557/news) ‘함평양민학살사건의 기억’이 진행된다.

소설 ‘귀향’은 ‘함평양민학살사건’을 모티프로 대학 연구 교수인 재환이 ‘함평양민학살증언록’을 펴내는 과정을 담고 있다.

프로젝트 ‘함평양민학살사건의 기억’은 지난 1일 꾸려진 ‘H탐사’라는 작은 모임이 운영하며 오는 28일까지 ‘카카오같이가치’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이 진행된다. H탐사는 ‘함평양민학살사건’의 은폐와 망각을 걷어내고 제대로 된 이름을 부여하고 그 슬픔의 시간들을 기억하고자 꾸려졌다. 백은하 작가를 비롯 정위상무(레지던스회의 대표), 박정현(하늘아래푸른정원 커뮤니케이션 대표), 배미경(더 킹핀 대표),윤석우(포토그래퍼), 은암미술관 등이 함께한다. 현재 크라우드펀딩에는 530여 명이 댓글, 1520여 명의 응원, 공유 등이 이어지고 있다.

H탐사는 함평양민학살사건을 알리기 위해 영상작품을 제작하고 그 결과를 오는 5월 9일 광주예술의거리 은암미술관에서 전시회를 연다. 전시에는 신도원 미디어아티스트, 펑크파마 등이 초대되며 광주예고 학생 15명의 작품도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전시회에는 펀딩에 참여한 분들은 모두 초대되고 오픈식은 오후 4시다.

또한 카카오같이가치 프로젝트와 아울러 백은하 작가는 지난 11일부터 페이스북에서 ‘함평양민학살사건의 기억’프로젝트 ‘스노우볼링’을 스타트했다.

‘스노우볼링’은 페이스북에서 행운의 편지처럼 챌린저를 지목해 릴레이로 공유해 가는 것을 말한다. ‘스노우볼링’ 프로젝트 방법은 지명 받은 사람이 ‘카네이션 Movement’ 이미지, 혹은 ‘카네이션 Movement’ 이미지를 든 자신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세명의 챌린저를 지명한다.

한편 나주 출신 백은하 작간는 1996년 일간스포츠 신춘대중문학상 소설 당선으로 등단했다. 소설집 ‘의자’ ‘무지개에는 왜 검은색이 없을까요?’ ‘별의 시간’ 등과 장편 ‘블루칩시티’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싱어송라이터 이푸른솔 첫 앨범 ‘인사’ 발매

19일·5월 3일 ‘존앤마리아’서 공연

싱어송라이터 이푸른솔(27·사진)씨가 첫 정규앨범 ‘인사’를 최근 발매했다.

이씨는 여수에서 고등학교 음악 교사로 활동하며 꾸준히 작곡작업을 해왔다. 앨범 ‘인사’에는 이씨가 대학교 시절 짝사랑을 떠올리며 만든 ‘봄이 오면’과 이별의 아픔을 담담하게 풀어낸 ‘인사’ 등 10곡이 담겨있다.

노래는 전반적으로 단정하고 반듯한 음색 사이에서 모두가 공감할 만한 감성을 담백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씨의 노래는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고 타이틀곡 ‘인사’의 뮤직비디오는 유튜브(youtu.be/lAw2-gML0-o)에서 볼 수 있다.

디자이너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그룹 ‘엔디자이너스’가 앨범 제작 전반을 맡았고 밴드 ‘홀리건’ 출신 김유석 감독(제작)과 밴드 ‘로로스’ 도재명(편곡)씨가 참여했다. 기타리스트 홍갑과 드러머 이현준, 베이시스트 이동민, 첼리스트 지박, 이아립, 윤덕원, 김목인, 강아솔씨 등도 앨범 제작에 힘을 보탰다.

이씨는 오는 19일 오후 8시 광주시 동구 수기동 ‘존앤마리아 ’에서 앨범 발매 기념 공연 ‘봄이 오면’을 연다. 다음 달 3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인사’를 제목으로 한 공연을 펼친다. 입장료 1만원.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